

문화와 언어에 대한 교육상의 문제의식에 관하여*

- 中, 港, 英 중국어 교재 상의 ‘소개’와 ‘이름’의 비교를 중심으로 -

朴 贊 旭**

<目 次>

I. 문제의 제기	III. 中, 港, 英 교재 속 문화와 언어
II. 문화와 언어의 속성 간 유사성	IV. 섞임의 관점에서 문화와 언어 바라보기

I. 문제의 제기

본고는 중국, 홍콩, 영미권의 중국어 교재에서 발견되는 ‘소개’와 ‘이름’ 상의 현상들을 살펴봄으로써 중국어교육에 앞서 문화와 언어에 대해 가져야 할 문제의식을 논의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다. 우선 필자의 과거 사례에 서부터 논의를 시작해보고자 한다. 아래 예문을 보자.

- (1) <<한어구어>> 3, 제3과
[中國—보통화 → 외국인]¹⁾

* 이 논문은 2018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

본고는 중국문화연구학회 주최로 2018년 5월 19일,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열린 “2018년도 중국문화연구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문화로서의 교재 — 중국, 홍콩, 영미권 중국어 교재 간 비교를 중심으로”란 제하로 발표한 내용에 기초해 있으며 큰 폭의 수정과 보완을 거쳤다.

** Seoul女子大學校 中語中文學科 副教授

1) 예문의 각괄호로 부기된 “[中國—보통화 → 외국인]”은 기본적으로 “[지역—언어 → 학습자]”를 기초로 한다. 예컨대, “[中國—보통화 → 외국인]”은 “외국

王平: 彼得, 你吃過餃子嗎?

彼得: 我還沒吃過。我想買一袋速凍餃子嚐嚐。

王平: 速凍餃子沒有自己做的好吃。

彼得: 自己做? 我可不會。

王平: 很容易, 週末去我家包餃子怎麼樣? 叫傑夫、安妮和麗莎一起來。

예(1)은 교재 내용 그대로의 대화 단락이다. 당시 교실 현장에서 필자는, 자기화(自己化)의 일환으로, 상기 단락에서 치환 가능한 내용을 자신에게 맞게 고쳐 연습하라고 학습자들에게 요구하였다. 치환 가능한 내용으로는 여러 요소가 있겠지만 반 구성원의 수준에 상관없이 가장 쉽게 자기화할 수 있는 요소로서 호칭을 들 수 있다. 이에 필자는 다음과 같이 주변 학우들의 이름을 대화 속에 넣어 연습하라고 주문하였다.

(1)' 《한어구어》 3, 제3과

○○: □□, 你吃過餃子嗎?

□□: 我還沒吃過。我想買一袋速凍餃子嚐嚐。

○○: 速凍餃子沒有自己做的好吃。

□□: 自己做? 我可不會。

○○: 很容易, 週末去我家包餃子怎麼樣? 叫△△、☆☆和◎◎一起來。

어렵지 않은 주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난관을 만났다. 안면식이 있는 조의 조원들을 제외하고는 서로의 나이나 학번을 묻기에 바빴던 것이다. 나이(또는 학번)에 민감하지 않은 중국의 대인(對人) 질서와 그에 민감한 한국의 대인 질서 간 충돌이었다. 발음도, 단어도, 문장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외국‘어’를 할 줄 안다고 생각했던 학습자들이 정작 외국‘인’들의 질서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었다.

본고는 이것이, 말을 할 때는 ‘그러해야 한다’는, 언어공동체마다 특정

인)을 대상으로 “中國”에서 출간된 “보통화” 교재를 뜻한다. 이하 “[香港—보통화 → 내국인(월어 화자)]”, “[香港—보통화 → 외국인]”, “[澳洲, 美國—화어(華語) → 외국인(비화교/화교계 현지인)]”은 모두 이와 동일하다.

행위와 대상에 대해 각 성원들이 상호주관적으로 갖고 있는 마음(또는 상상) 속 질서의 문제라고 생각한다.²⁾ 중국어로 그렇게 말한다 또는 그렇게 말해야 한다는 말하기 질서가 중국인의 마음속에 존재하듯, 한국인 역시 마찬가지다. 이 질서는 그것에 기초한 공동체에서 생활할 때는 인식하기 힘들다. 타 공동체의 질서를 만날 때, 그리고 그 질서로 들어가 보고자 할 때 비로소 그것의 존재를 인식하게 된다. 그래서 두 질서가 만나는 경계 — 외국어 교육과 사용 현장 — 에서 학습자는 종종 방황하게 된다. 그리고, 상기 사례에서 보듯, 그 때야 비로소 언어학습에 언어만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는다.

우리는 흔히 이 같은 질서에 문화라는 이름을 부여한다. 하지만 문화라고 하면 흔히 음식, 의복, 주거 등 우리가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유형의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 무형의 것으로서, 언어를 놓은 경향이 있다. 단적인 예로, 언어가 문화의 일부인가 라는 질문에는 흔히 그렇다고 답한다. 하지만 흔히 언어학개론서에는 ‘문화’가 없고 문화개론서에는 ‘언어’가 부재하다. 뿐만 아니다. 언어 교재들을 살펴보면, 문화는 언제나 각 장의 맨 후면에 배치되어 알면 좋을 ‘상식’ 정도로 치부된다. 언어를 보는 시각이 문화에 미치지 못하고 문화를 보는 시각이 언어에 미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본고는 상기 문제와 한계를 출발점 삼아, 그것의 환기와 극복을 위해, “문화는 행위(김하수 2008, p.241)”란 관점을 견지한다. 그리고 언어—문화와 관련한 두 공동체 — 발화 공동체(speech community)와 담화 공동체(discourse community) — 를 가정하며(Kramersch 1998, pp.6-8) 중국, 홍콩, 영미권(이하 ‘中, 港, 英’으로 겸칭한다) 중국어 교재에 나타난 ‘소개’와 ‘이름’의 문제를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한다.

본고는 먼저, 논의의 편의를 위해, 문화와 언어의 속성 간 유사성에 대해 살펴본다. 그 다음으로, 中, 港, 英 교재에 반영된 ‘소개’ 행위와 ‘이름’

2) 본고에서의 ‘상상 속 질서’와 ‘상호주관(성)’은 Harari(2011[조현욱 2015, p.153, p.175])에 기대어 있다.

의 표기 및 교재 구성 방식 등에 대해 비교, 고찰한다. 끝으로, 도출된 결과에 대해 비판적 관점에서 분석 및 해석을 시도하며 끝을 맺는다.

II. 문화와 언어의 속성 간 유사성

학문적 개념으로서의 ‘문화’가 인류학자들에 의해 19세기 처음으로 정의 내려졌고(Deutscher 2010[윤영삼 2011, p.21]) 그 후로 1952년까지 약 175개의 정의가 출현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한상복 등 2011, p.73), 다시 그 후로 60여 년이 지난 지금 각자 딛고 있는 학문적 토양에 따라 더욱 많은 정의가 부여되었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다. 다만 문화의 광범위함과 복잡함으로 인해 한 문장으로 정의하기는 힘들지만 그것의 속성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언어와의 연관성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아래는 한상복 등(2011, pp.80-88)이 제시한 문화의 속성들이다.

- 1) 문화는 공유된 것이다.
- 2) 문화는 학습된 것이다.
- 3) 문화는 축적된 것이다.
- 4) 문화는 하나의 전체를 이루고 있다.
- 5) 문화는 항상 변한다.

상기 속성들은 언어를 문화적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근거로도 기능할 수 있다. 상기 문장들에서 ‘문화’를 ‘언어’로 바꿔보라. 전혀 어색함이 없음을 볼 수 있다. 오히려, 언어를 정의하던 자의성, 공시대, 통시대 등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언어가 가진 주요 속성들을 평이한 기술로 이해시킬 수 있다.

먼저 언어의 속성을 상기 속성에 비추어 생각해보자. 언어는 언중들에 의해 공유된다. 이는 곧 자의성의 생산 토대이다. 지금 우리가 쓰는 언어는 선대로부터 사용(즉 축적)돼온 결과물이다. 하지만 그 결과물은 고정되

어 있지 않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언중들의 사용 속에서 있던 것은 변하거나 소멸되고 새로운 것 역시 끊임없이 만들어진다. 그리하여 형성된 또 하나의 축적(사용 결과)물은 선대와 후대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교육되고 학습된다. 언어가 물리적 현상과 정신 능력, 사회적 맥락 등을 토대로 한 복합적 총체로서 구성되어 있다는 것 역시 말할 것도 없다.

상기 유사성에 근거하여 문화와 언어를 잠시 동일시해보자. 본고는, 그것이 문화든지 언어든지, 상기 속성 중에서도 1)번 항이 가장 근본적인 토대라고 생각한다. 무엇으로써 하나의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것이 어떤 모습이든 일단 공유되는, 즉 공동체 구성원들이 사용하는 과정에서 생명력을 얻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좀 더 본질적인 질문을 해보자. ‘문화/언어가 공유된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 다시 말해, 사람들은 무엇으로써 내가 타인과 문화/언어를 공유한다고 생각할까? 그래서 내가 저와, 타 공동체 성원과 구분되는, 어느 특정 공동체 성원이라고 생각할까? 이에 대해 본고는 다른 요인들보다 믿음이 상대적으로 큰 역할을 한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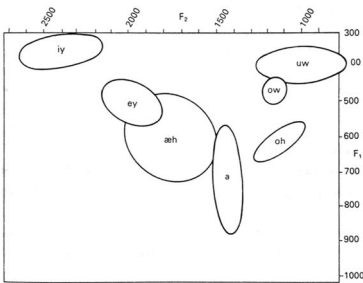
예를 들어, 한국인은 매운 맛의 김치를 먹는다. 그리고 그것을 대표적인 한국의 음식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어떻게 맵고 얼마나 매운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힘들다. 한국 김치의 매운 맛은 오히려 일본, 중국 김치와의 비교를 통해서 가늠된다. 또한 대표적이라는 이유로 한국 음식에서 꽤 오랜 기간 자리해 온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김치는, 반 만 년이란 시간에 비추어 볼 때, 오히려 현대적 축적물에 가깝다.³⁾ 중국어 교재에서 흔히 제시되는 ‘南甜北鹹東辣西酸’은 또 어떤가. 경험에 비추어볼 때, 정말 그 지역 곳곳마다 느낄 수 있는 객관적 지역 특색의 표현일까? 이에 대해서는 쉽게 긍정하기 힘들다. 오히려 언제부터였는지 모르지만, 그것의

3) 한국문화인류학회(2003, pp.24-25) 참고. 그에 따르면, 매운 김치는 300년도 채 안 되며 재료로서 널리 사용되는 배추 품종은 수입된 지 100년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김치는 역사가 짧은 최근의 발명품”이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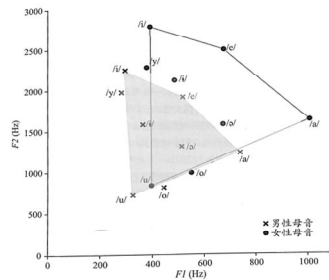
변화와는 무관하게, ‘그렇다’는 것에 대한 그들 간의 공유된 믿음이 언어로 표현된 결과일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음식, 의복, 언어 등의 다양한 형식도 이 같은 믿음에 토대를 둔 ‘상호주관적 질서(Harari 2011 [조현욱 2015, p.175])’가 재현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논의를 언어 문제로 좁혀보자. 한국어의 /개/는 중국어의 /狗/이다. 동일 대상이 한국어 공동체에서는 /kæ/로 중국어 공동체에서는 /kɔu/로 불린다. 대상을 어떻게 지시할 것인가는 해당 언어공동체의 결정에 달렸다는, 언어의 자의성에 기인한 결과다. 그런데 이들 공동체가 왜 개를 각각, 다른 발음도 아닌, /kæ/와 /kɔu/로써 지시하는가란 질문에는 돌아오는 대답이 똑같다 — ‘그것은 언어의 자의성 때문이다’.

순수 언어적 관점에서는 이 질문에 대해 답을 내리기 힘들다. 이는 문화를 대하는 관점의 개입을 수용했을 때라야 비로소 가능하다. 여러 임의의 자/모음 중에서 그 자음을 뽑아 그 모음에 결합시키면 그 의미가 발생한다는, 속성으로서의 공유된 믿음이 받침된 결과이다. 왜 어떤 공동체에서는 그 음성을 음소로 취하고 왜 다른 공동체에서는 그 음성을 음소로 취하지 않을까 하는 문제도 그와 동일 선상에서 설명된다. 아래 그림을 살펴보자.



〈그림 1〉4)



〈그림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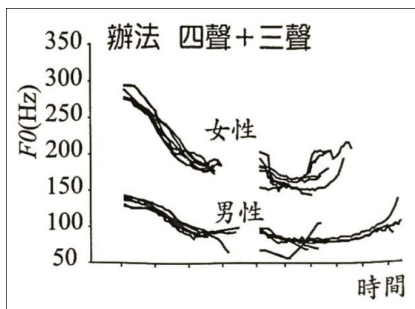
4) Fasold(1990, p.230, Figure 8.3), “뉴욕 시 73세 거주자의 모음 체계 일부”. 원래 “Labov, William, Malcah Yaeger, Richard Steiner. *A Quantitative Study*

모음을 논할 때면 흔히 모음사각도 상의 모음을 떠올리기 쉽다. 특정 위치에 정확히 배치된 일련의 모음들. 그래서 발화 시 a 는 항상 a 위치에 서 발음될 것이라고 해당 언어 공동체 성원들은 믿는다. 그러나 물리적 현상으로서의 음성은 실제 그렇게 구현되지 않는다. <그림 1>은 어느 뉴욕 거주자가 음소를 반복적으로 실현한 결과인데 좌상단의 /iy/는 ‘beat’의 ‘-ea-’로서,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어느 특정 좌표상의 점(點)이 아닌 타원형을 이루고 있다(Fasold 1990, p.230).

이는 마음(또는 생각이나 상상) 속의 /iy/가 반드시 어느 특정 주파수에 정확히 대응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물론 편차범위는 존재한다. 하지만 때론 조금 과하게 또 때론 조금 부족하게 실현되는 일군의 평균값이 곧 음소 /iy/로 표상된 것이다. 바꿔 말하면, /iy/가 곧 객관은 아니다. 공동체 성원들이 다양하게 실현되는 음성적 현상을 /iy/ 라고 마음(또는 상상) 속에서 공유하고 있을 뿐이다.

이 같이 공유된 믿음은 개인 내 차이는 물론 개인 간 차이도 초월한다. <그림 2>에서 작은 회색 다각형은 남성 화어(華語) 화자가 실현한 모음을 가리키고, 그것과 일부 겹쳐진, 커다란 무색 다각형은 여성 화어 화자가 실현한 모음을 가리킨다. 동일 음소에 대해 이처럼 상이한 음성적 현상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음소에 대한 상호 간 믿음은 같은 언어공동체 성원이라면 그것을 모두가 같은 음소라고 생각하게끔 만든다.

물론 중국어 성조 역시 예외는 아니다. 마음속 ‘ˊ’과 ‘ˇ’의 결합은 명료한 ‘ˊ + ˇ’의 모습이 아닌 <그림 3>과 같이 실현된다. 그림



<그림 3>

of Sound Change in Progress Vol. 2. 1972, p.1”에 게재된 ‘figure 1. Chris Andersen, 73, New York City’를 Fasold(1990)로부터 재인용 하였다.

5) 鄭靜宜, 《語音聲學—說話聲音的科學》, 臺北: 心理出版社, 2011, p.115, 圖 7-6.

에도 불구하고 화자는 자신뿐 아니라 상대방도 <그림 3>이 아닌 ‘ ` + ˇ ’ 을 실현한다고 믿는다. 의사소통은 이처럼, 개인적 차원이 아닌, 공동체 차원의 공유된 믿음 위에 세워진다. 객관의 물리적 현상에 기초해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의사소통은 물리 현상을 대하는 ‘마음(상상) 속 질서(Harari 2011[조현욱 2015, p.153])’에 기초해있다고 보아야 한다.

사실 믿음, 마음, 상상, 질서 등의 용어는 언어학을 논하는 장에서 상당히 낮설다. 그것들이 낮은 이유는, 문화와 중국어에 관련한 그간의 논의가 말(speech) 위주가 아닌 어휘 위주였던 데 상당부분 기인해 있다고 본다. 유구한 역사적 흔적을 주로 어휘 속에서 찾으려 했던 탓에 ‘언어와 문화’ 하면 가장 먼저 어휘를 떠올리는 전통이 있어왔음을 부인하기 힘들다.⁷⁾ 하지만 Kramsch(1998, p.8)가 언어와 관련한 문화의 층위(layer)를 사회적(공시적) 층위와 역사적(통시적) 층위, 그리고 그에 더해, 상상의 층위(the

6) 鄭靜宜, 《語音聲學—說話聲音的科學》, 臺北: 心理出版社, 2011, p.273, 圖 12-5.

7) 본고는 어휘를 중심으로 한 ‘언어와 문화’의 탐색이 중요하지 않다거나 덜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어휘만을 중심으로 한 ‘언어와 문화’의 탐색과 분류를 경계하고 ‘언어와 문화’ 간 관계와 그로부터 파생된 여러 현상들을 거시적이면서도 고도화된 개념을 기초로 해석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그런 점에서, 일찍이 이와 관련하여 주의를 준 사피어(Sapir 1921, p.234)의 다음 견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In the sense that the vocabulary of a language more or less faithfully reflects the culture whose purposes it serves it is perfectly true that the history of language and the history of culture move along parallel lines. But this superficial and extraneous kind of parallelism is of no real interest to the linguist except in so far as the growth or borrowing of new words incidentally throws light on the formal trends of the language. The linguistic student should never make the mistake of identifying a language with its dictionary(어휘가 어느 정도는 그것이 사용되는 문화를 충실하게 반영한다는 점에서 언어의 역사가 문화의 역사와 나란히 움직인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이들 간의 피상적이면서도 이질적인 대응은, 새로운 어휘의 증가와 차용이 언어의 외형적 경향을 비취보도록 하는 것을 제외하면, 언어학자의 진정한 흥미를 끌지 못한다. 언어학자들은 언어를 그것의 사전과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imagination)를 핵심층위로 설정한 것처럼, ‘상상’이 문화와 언어 간 관련성을 이해하는데 있어 그다지 낮은 개념만은 아니다. 따라서 언어와 문화는, 우리가 의례히 생각해온 그 이상으로 그리고 언어가 문화의 일부라는 기존의 직감적 판단을 넘어, 존재양식으로서의 상호주관성을 공동의 분모로 삼아 섞이고 반영하며 어울려왔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언어가 문화를 반영하고, 다시 문화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양자는 상호 어떠한 역할을 주고받을까? 본고는 이들 간의 상호 연계성을 ‘소개’와 ‘이름’에 드러나는 특이점들에 주목하여 관찰해보고자 한다. 나아가 언어 교육에서 문화를 어떻게 끌어안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다시금 의식하도록 촉구할 것이다.

Ⅲ. 中, 港, 英 교재 속 문화와 언어

1. 비교 1: 소개

일반적으로 우리는 인사말을 배움으로써 언어 간 경계를 넘는다. 중국어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교재마다 제1과는 늘 “你好”로 시작한다. 그런데 이 같은 경계 넘기에 대해 우리는 일종의 전형을 가정한다. 인사 주고받기에 이은 이름 묻고 답하기, 즉 소개가 그것이다. 그래서 한국의 중국어 학습자라면 아마도 “你好”와 “你好”에 이어 “您貴姓?”과 “你叫甚麼名字?”를 제일 먼저 떠올릴 것이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으로서 “我姓 ……”과 “我(的)名字叫 ……”가 입가에 맴돌 것이다. 좀 더 나아가간다면 국적을 더해 “(我)是韓國人” 정도가 뒤따를 수 있겠다. 아래는 우리가 그동안 접해온 소개의 예이다.

(2) 《한어구어》 1, 제4과

[中國—보통화 → 외국인]

傑夫: 你叫什麼名字?

王平: 我叫王平, 是中國人。你們是……?

安妮: 我們是留學生。我叫安妮, 他叫傑夫。

(3) 《한어구어》 4, 제1과

[中國—보통화 → 외국인]

甲: 金雲福, 金銀的金, 白雲的雲, 幸福的福。……

乙: 我叫山田有美, 日本人, 請您多多關照。……

丙: 吳平春, 口天吳, 水平的平, 春天的春。

우리가 그간 접한 중국어 교재는 상기 “[中國—보통화 → 외국인]”, 즉 중국에서 보통화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외국어로 학습할 사람들을 위해 만든 것이 일반적이다. 중국과의 수교 후부터 우린 줄곧 그것을 중국으로부터 들여와 배웠고 또 가르쳤다. 그 결과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중국 ‘대륙’에서 ‘표준’ 한어(즉 보통화)로써 CD상의 ‘이상’적인 중국어 화자와 교류하는 것을 언제나 마주칠 수 있는 일종의 ‘일상’인 양 여겨왔다. 그리고 그 외 현상들엔 별다른 가치 판단을 부여하지 않고 ‘비표준’이란 레테르를 붙여왔다.

하지만 우리의 시야를 좀 더 넓혀보면 어떨까? 홍콩이나 영미권 국가에서도 중국어를 가르치고 배울 때 상기와 같은 가정과 패턴에 기대어 자신을 소개하며 언어 간 경계를 넘을까? 먼저 홍콩의 경우를 살펴보자.

홍콩은, 그 역시 중국임에도, 중국 내륙의 환경과 많이 다르다. 정치, 경제 등의 제도적 측면도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인적 구성과 교류 및 그들이 사용하는 일상의 언어가 다르다. 홍콩은 국가적 차원의 공용어로는 보통화를, 일상어로는 지역 위세어인 광동화를, 교육어(특히 대학에서의 교육어)로는 영어를 사용하고 있다.⁸⁾ 하지만, 아래 각주에서도 볼 수 있듯, 중국 회귀에 따른 왕래의 증가가 홍콩인들에게 보통화에 대한 학습 요구를 높여가고 있다.

8) 劉林(2017, BBC News)이 제시한 홍콩의 언어 및 그 사용 비율은 다음과 같다.

또 한편으로, 홍콩은 약 150여 년 간 영국으로부터의 피지배 역사를 갖고 있다. 또한 지리적 여건을 이용하여 일찌감치 세계에서 손꼽히는 중개 무역항이자 금융 도시로서 자리매김 하기도 하였다. 때문에 홍콩인들은 싫든 좋든 영어를 일상화해왔으며 그로써 외국인과도 스스럼없이 일상을 공유해 왔다. 하지만 외국인의 입장에서 볼 때, 비록 영어가 통용된다고 해도, 홍콩인들이 (보통화, 광둥화를 포함하는) 중국어를 모어로 하는 탓에 홍콩 및 중국인들과의 교류를 위한 중국어 학습은 특히 장기 체류를 계획하는 외국인들에게 필히 요구되는 항목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배경은 같은 보통화 교재라고 해도 보통화에 대한 수요층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 점은 내국인의 보통화 학습 수요에 맞춘 (4), (5)와 외국인의 보통화 학습 수요에 맞춘 (6), (7)의 예로부터 볼 수 있다.

(4) 《普通話速成》(南人北語初級, 第1課 對話一

[香港—보통화 → 내국인(월어 화자)]

傅小姐: 早。請問, 您找哪位?

盧先生: 我姓盧, 叫盧樂達。我是新來的同事。

(5) 《普通話速成》(南人北語初級, 第1課 對話二

[香港—보통화 → 내국인(월어 화자)]

	1996년	2016년
英語	38.1%	53.2%
廣東話	95.2%	94.6%
普通話	25.3%	48.6%

“香港語言使用比例(<https://www.bbc.com/zhongwen/trad/chinese-news-40439847>)”

아울러 Lin(2015, pp.21-22)에 따르면, 홍콩은 중국으로 회귀되기 전까지 90% 이상의 중고등학교(secondary school)에서 그리고 대부분의 대학에서 영어 매개 수업(English-medium instruction, EMI)을 진행하였으나 회귀 직후로는, 대학은 그대로지만, 중고등학교의 약 25%만이 영어 매개 수업을 하고 나머지는 중국어 매개 수업(Chinese-medium instruction, CMI)을 진행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지금은 수정되어(the fine-tuned medium of instruction, MOI) 모든 학교에서 커리큘럼의 25%에 한해 영어 매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었다고 한다.

江志偉: 張先生, 您好, 我叫江志偉。江是長江的江。朋友們更喜歡叫我的英文名字。

張先生: 叫英文名字是挺方便的。您是幹甚麼工作的?

(6) 《漢語入門》(上冊, 第一課

[香港—보통화 → 외국인]

老 師: 你姓甚麼?

學生1: 我姓許。……

學生4: 我姓Linden。

老 師: 你姓林, 好嗎?

(7) 《漢語入門》(上冊, 第二課

[香港—보통화 → 외국인]

老 師: 你叫甚麼名字?

學生1: 我叫小美。……

學生3: 我叫Helen。

老 師: 你的中國名字叫海英, 好嗎?

그렇다면 영미권 국가들의 상황은 어떨까? 아래 [澳洲, 美國—]의 (8), (9)는 호주에서 출판된 교재이고 (10)과 (11)은 미국에서 출판된 교재이다. 이들 국가는 모두 영어를 공용어로 한다는 점과 이민자들의 의해 세워진 다민족 국가라는 특징을 공유한다. 영어는 그들의 공용어이면서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많은 사용자 분포를 보이고 있는 언어이다.⁹⁾ 그리고 국제 공용어로서도 당분간은 확고한 지위를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Graddol 2010, p.4).

중국어는, 미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¹⁰⁾, 2016년 현재 약 340만 명의 화자가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 내 소수민족의 모어로서는 두 번째로 많은 사용자수로, 2006년의 약 250만 명 대비 100만 명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사용자 수가 언어의 중요성을 인정받는 요인 중 하나인 만큼 중국어의 중요성이 과거에 비해 높아졌다고도 볼 수 있겠으나, 통계청 자

9) 박찬욱(2016)에 따르면, 제2언어 화자를 포함한 사용 인구수 면에서 중국어와 영어는 약 10억 내외의 사용자수를 가지며(p.5, 표 2) 사용국수 면에서 중국어는 최대 5개국에서, 영어는 최대 66개국에서 사용된다고 하였다(pp.5-6, 표 3).

10) 미통계청(United States Census Bureau): “LANGUAGE SPOKEN AT HOME FOR THE POPULATION 5 YEARS AND OVER” (https://factfinder.census.gov/faces/tableservices/jsf/pages/productview.xhtml?pid=ACS_09_1YR_C16001&prodType=table).

료로 미루어보면,¹¹⁾ 3억여 명의 미국 전체 인구수 그리고 약 4천만 명의 스페인어 사용인구수와 비교해 중국어 사용 인구수는 아직까지 미국 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영미권 국가들에서의 중국어는 외국어로서의 중국어뿐만 아니라 모어(mother tongue) 또는 유산어(heritage language)로서의 중국어로도 학습된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맥락을 배경으로 아래 제시된 영미권 국가들의 중국어 교재 속 ‘소개’를 살펴보자.

(8) *You Can Speak Mandarin* Stage One, Unit 1

[澳洲, 美國—화어(華語) → 외국인(비화교/화교계 현지인)]

Peter: 您好!

Jane: 您好!

Peter: 我叫Peter, 你呢?

Jane: 我叫Jane.

(9) *HANYU For Beginning Students*, 1.4

[澳洲, 美國—화어(華語) → 외국인(비화교/화교계 현지인)]

— 他叫甚麼名字?

— 他叫張建華。

— 她叫甚麼名字?

— 她叫安娜。

(10) *Chinese Primer* Character Text, 第一單元

[澳洲, 美國—화어(華語) → 외국인(비화교/화교계 현지인)]

甲(男, 美國人), 乙(女, 中國人)

甲: 貴姓?

乙: 我姓丁。你貴姓?

甲: 我姓張, 我的名字叫張儒思。

乙: 我叫丁新。

11) 미통계청(United States Census Bureau). 사이트 주소 상동.

(11) *Interactions I: A Cognitive Approach to Beginning Chinese*, 第八課

[澳洲, 美國—화어(華語) → 외국인(비화교/화교계 현지인)]

小李: 小高, 你認識她嗎? 來, 我給你們介紹一下。她叫林美英, 從東部來的。他是高德中, 從西部來的。

小林: 你好! 我姓林, 雙木林, 美是美國的美, 英是英國的英。我媽媽是美國人, 可是爸爸不是英國人, 是中國人。

小高: 我是高德中, 高矮的高, 德國的德, 中國的中。父母不是德國人, 也不是中國人, 而是美國人。

이제 세 지역의 교재를 비교해 보자. 우선 공통점을 짚어보자면, 예(3), (5), (11)에서 볼 수 있듯, 일음다자(一音多字)라는 서사체계의 특성으로부터 비롯된 공통의 소개 방식을 들 수 있다. 中, 港, 英 교재 모두가 예(3)의 “吳平春, 口天吳, 水平的平, 春天的春”과 같이 집자(集字)의 방식으로 써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는 음소문자를 사용하는 한국 학습자들에게 상당히 생소한 소개 방법이다. 이는 중국어의 경계를 넘는 학습자들에게 자기소개를 위해 이름 각 자(字)에 상응하는 단어를 찾아야 하는 부담과, 특히 한글 이름을 사용하는 학습자들에게 자신의 고유어 이름을 한자에 맞춰야 하는 부담까지 가중될 여지가 있다(물론, 그 반대로, 그것도 흥미로움의 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이, 당해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몇 가지 차이점도 관찰된다. 먼저 [香港—보통화 → 내국인(월어 화자)]에서 보인 “朋友們更喜歡叫我的英文名字”와 그에 호응하는 “叫英文名字是挺方便的”를 들 수 있다. 이는 다중언어가 상용되는 홍콩에서 영문명을 갖는 것도 ‘일상’적인 것임을 전제하는 동시에, 발음의 용이함이나 특정 언어에 대한 개별 선호도 등에 기인하여, 자신을 어떻게 불러달라고 하는 요청도 처음 만난 상대에게 할 수 있는 행위임을 보여준다. [中國—]의 교재라면 자신이 어디 출신이든지에 상관없이 중문 인명을 당연한 기준으로 소개한다는 점에서 상기 예는 [香港—]의 교재에서나 접할 수 있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香港—보통화 → 외국인]에서는 예(6), (7)과 같이 성 묻고

답하기와 이름 묻고 답하기가 각기 다른 과에 배치된 점을 들 수 있다. 예 (6)과 (7)은 동일 교재에서 각각 제1과, 제2과인데, 제1과에서는 “你姓甚麼”와 같이 성(姓) 묻고 답하기만 제시되어 있고 제2과에서는 “你叫甚麼名字”처럼 이름 묻고 답하기만 제시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香港—보통화 → 외국인]에서는, 자기소개 시 ‘(叫) + 姓 + 名’의 형식으로써 “你叫甚麼名字”에 대응하는 [中國—보통화 → 외국인], [香港—보통화 → 내국인(일어 화자)]와 달리, 제2과의 “叫” 뒤로는 내·외국인 구분 없이 모두 ‘(叫) + ∅ + 名’의 형식으로써 순수하게 이름만 제시되어 있다.

이는 중국어의 사용 관습보다는 영어의 사용 관습을 배려한 결과로 볼 수 있는데, 영어를 상용하는 홍콩인의 일상은 물론, ‘given name’과 ‘family name’을 나눠 부르는 외국인 학습자들의 언어사용 방식을 교재의 편제에 투영시킨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덧붙여, 예(6)에서와 같이, “您貴姓”이 아닌 “你姓甚麼”로 성을 묻는 것도 눈에 띄는데, 이 또한 “你姓甚麼”가 “您貴姓”보다는 존대 없이 행하는 ‘What is your last(or family) name?’에 축자적으로 더 잘 대응된다는 점도 상기 해석을 뒷받침해준다.

끝으로, [澳洲, 美國—화어(華語) → 외국인(비화교/화교계 현지인)]에서는 “我媽媽是美國人, 可是爸爸不是英國人, 是中國人”과 그에 호응하는 “父母不是德國人, 也不是中國人, 而是美國人”의 예를 들 수 있다. 혼혈이란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자기 소개와 함께 대두시키는 표현은 다민족 국가를 배경으로 할 때만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눈여겨 볼 점은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족적(ethnicity)이 아닌 국적(nationality)으로 나타냈다는 데 있다. 만일 이 같은 표현을 중국내로 들여왔다면(즉, ‘소개’의 장(場)에서 ‘혼혈’을 표현하고자 했다면) 澳洲, 美國와 다민족 국가란 점에서는 동일해도 그것이 이민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란 점에서 국적(nationality)보다는 족적(ethnicity)이 대두되었을 것이다.

2. 비교 2: 이름

외국어 경계를 넘을 때 소개와 함께 논의될 수 있는 것이 이름과 그것의 표기 문제이다. 아래는 이름을 중심으로 中, 港, 英 교재를 다시 한 번 살펴볼 것인데, 앞서 들었던 예(1)부터 예(3)까지는 재제시하지 않기로 하되 설명을 위해 예(12)와 (13)을 추가 제시하기로 한다.

- (12) 《한어구어》 4, 각 대화쌍 별 제1, 14, 15과

[中國—보통화 → 외국인]

吳平春: 爲甚麼?

山 田: 最近有地震, 很多人準備離開這兒呢!

.....

張秋月: 從這邊下來! 跟著我走!

雲 福: 謝謝您!

.....

彼 得: 好, 記住了。我上去了。

山 田: 一路平安!

傑 夫: 替我們問候你的父母!

- (13) 《한어구어》 4

[中國—보통화 → 외국인]

金雲福勸吳平春去爬山。(p. 181)

安妮常常分不清吳平春和雲福, 經常叫錯他們倆的名字。(p. 202)

[中國—보통화 → 외국인](예 1~3, 12~13)에서 중국인은 王平, 張秋月, 외국인인 金雲福, 山田有美, 吳平春, 傑夫, 安妮, 彼得이다. 이들 중 동양계는 王平, 張秋月, 金雲福, 山田有美, 吳平春, 서양계는 傑夫, 安妮, 彼得이다. 동양계는 성과 이름을, 서양계는 이름(또는 애칭)만 불러주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시, 동양계에서 중국계는 성과 이름이 일관되게 호명되고 표기된다(王平, 張秋月, 吳平春). 하지만 한국계는 성과 이름이 모두 표기

되기도(金雲福) 하고 이름만 표기되기도(雲福) 한다(예 3, 13). 일본계는 직접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를 제외하고는(山田有美, 예 3) 모두 성만 표기되고(山田) 있다. 상기 분류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中		外	
		東	西
중국인 / 계		한국인 / 계	일본인 / 계
‘姓 + 名’ 王平, 張秋月, 吳平春		‘姓 + 名’ 金雲福	‘姓 + 名’ 山田有美
			‘姓’ 山田
		‘名’ 雲福	‘名’ 傑夫, 安妮, 彼得

한국어에서 이름은, 대화자간 신분(나이, 계급, 학번 등)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보통 ‘姓 + 名’의 형식이 해체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에 따른 불편함을 덜기 위해서라도 신분 확인 절차를 가지며 동의 여부에 따라 ‘0 + 名’의 형식으로 발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에 일본어에서 성(姓)은 섞일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姓 + 名’의 소개가 있고 나서는 보통 ‘姓 + さん’의 형식으로 많이 불린다. 그리고 서양은 첫 만남에서 ‘名 + 姓’을 먼저 소개한 뒤 “please call me OOO” 등으로써 애칭을 자가 추천하거나 상대방에게 애칭으로 불러줄 것을 요청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4) *New Interchange 1*, Unit 1. “Conversation Introducing Yourself”

Elizabeth: Hello, I’m Elizabeth Mandel.

Chuck: Hi! My name is Charles Chang. But please call me Chuck.

Elizabeth: Nice to meet you, Chuck. You can call me Liz.

Chuck: OK. And what’s your last name again?

Elizabeth: Mandel.

이는, 민족과 국적을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있는 ‘姓’과 ‘名’이 특정 외국어 교재로 들어갈 때 그 중 무엇이 소거되고 또 어떻게 불리는가 하는 점은 각기 다르게 표현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中國—보통화 → 외국인]에 반영된 결과는, 왜 중국 인명은 ‘姓 + 名’으로 일관되게 불리는가, 인명 중에서 왜 한국 인명은 ‘姓’이 생략되고 일본 인명은 ‘名’이 생략되는가, 또 서양 인명은 ‘姓 + 名’도 ‘名 + 姓’도 아닌 애칭으로서의 ‘名’인가에 대해, 중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곳에서 출판된 교재라고 하더라도 등장 인물의 언어 공동체에서 사용되는 관습이 (일부라도) 수용 및 반영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혼재적 양상은, 예(14)상의 자가 추천 — “please call me OOO” — 이 [香港—보통화 → 내국인(월어 화자)] 상의 “朋友們更喜歡我的英文名字”와 유사성을 띠듯이 암시적일 때도 있지만, [香港—보통화 → 외국인] 상의 예(6), (7)처럼 명시적으로 드러날 때도 있다.

(6) 《漢語入門》(上册), 第一課

[香港—보통화 → 외국인]

老師: 你姓甚麼?

學生1: 我姓許。……

學生4: 我姓Linden。

老師: 你姓林, 好嗎?

(7) 《漢語入門》(上册), 第二課

[香港—보통화 → 외국인]

老師: 你叫甚麼名字?

學生1: 我叫小美。……

學生3: 我叫Helen。

老師: 你的中國名字叫海英, 好嗎?

[香港—보통화 → 외국인]에서 예(6)의 許와 예(7)의 小美, 예(6)의 Linden과 예(7)의 Helen을 합치면 각각 개별 이름들이 완성된다. 한 사람은 許小美, 또 한 사람은 Helen Linden이다. 눈여겨 볼 점은 老師가 Helen Linden이란 서양 인명을 증문으로 바꿔주는 행위에 있다. 老師는 음운 구조 상의 차이와 서사 체계 상의 충돌을 극복하면서도 유사한 독음을 최대한 이용하여 Linden을 林으로, Helen을 海英으로 바꾸어주는데, 사

실 이 같은 행위에는 유사 독음 찾기 그 이상의 의미가 존재한다.

중문으로의 개명 이후 그리고 그에 대한 학습자의 수용 이후, 자국에서 Helen Linden으로 불리던 사람은 Linden을 林으로, Helen을 海英으로 바꿨다고 해도 Helen Linden이 海英林으로 불릴 가능성은 낮다. Helen Linden을 구성하던 ‘名 + 姓’의 사회적 규칙이 언어의 전환과 함께 ‘姓 + 名’의 사회적 규칙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그 결과 중국어로는 林海英 또는 海英으로만 불릴 수 있다. 이렇듯 외국어 경계를 넘는, 즉 소개와 함께 이름을 밝히는 것은 단순히 ‘어(語)’의 경계만을 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큰 틀에서 ‘어(語)’를 구성하는 사회적 규칙과 사용의 관습을 수용하는 행위이자, 보다 더 큰 관점에서, 원어 사용자들의 공동체로 발을 내딛는 행위이다.

IV. 섞임의 관점에서 문화와 언어 바라보기

1. 기준 그리고 충돌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문제를 던져보자. 中, 港, 英의 교재들이 제시하는 중국어는 무엇에 준한 것일까? 거시적으로 보면, 중국어를 모어로 하는 화자들의 관습에 준했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는 모어 편찬자가 속한 발화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주관적 믿음 — 그것이 당연한 것이며 또 중국어 학습자라면 그것을 당연한 듯 받아들여야 하고 또 그로써 자신을 소개하거나 타인을 불러야 한다는 — 에 기초해 있다. 이는 학습자의 모어 사용방식과는 무관하다.

믿음에 기초해 있다는 말은 절대 기준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기 예들이 보여준 것처럼, 中, 港, 英 교재는 모두 중국어라는 동일 외국어의 학습을 표방한다. 하지만 사실, 상기 교재들은 중국어라는 고도의 ‘질서 정연한 이질체(orderly heterogeneity, Weinreich 등 1968, p.100)’와 관련하

여 편찬자 자신이 겪은 경험(이렇게 사용한다/했다)과 상상(이렇게 사용하면 좋을/통할 것이다)이 더해진 결과물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기에 모어 화자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속한 언어 공동체의 일부 규약만을 나타낼 수 있을 뿐 모어 화자라는 신분 자체가 곧 구사된 언어에 대표성을 부여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권력 관계의 측면에서 볼 때 학습자는 언어적 약자일 수밖에 없다. 주어진 교재에 준하여 있는 그대로 입력하고 출력해야 한다는 강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기에 학습자는 ‘이것이 누구의 기준인가’란 질문을 하기 보다는, 자신의 교재를 하나의 기준으로 여기고(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그 기준을 ‘어떻게 학습할 것인가’란 질문을 먼저 하게 된다. 그 결과 모어 사용 상의 관습이 외국어 사용 상의 관습과 부딪히면 별다른 고민 없이 외국어의 사용 관습을 먼저 따르는 경향을 띤다.

대표적인 예로서, 자기소개 시 자신의 이름을 중문으로 해야 한다는 한국 학습자들의 강박이 그렇다. 인명은 고유명사이다. 그 이름에 그 같은 사람은 세계에서 유일무이하다. 한국에서 대다수는 여전히 부모로부터 한자어 이름을 부여받는다. 그러나 한자어 이름을 갖고 있다는 것이 반드시 중국어 발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소개해야 한다는 당위성의 토대가 될 수는 없다. 앞서 본 서양인들의 이름이 어떠했는가. Peter는 彼得였고 Jeff는 傑夫였다. 초면부터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영미권의 소개 방식과는 괴리를 보이지만, 원명(原名)의 발음에 최대한 가깝게 하려는 경향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기준을 한국 인명의 소개로 적용해 본다면 어떨까? 여기에는 물론, 보통화에는 입성이 없기 때문에 발음하기 힘들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예(8)의 “Peter”와 “Jane”처럼 원명의 알파벳 표기는 이미 중국어 교재 안으로 들어와 있다. 입성의 발음이 어렵다는 것을 이해 못하는바 아니지만 그렇다고 중국어 화자들이 영어 학습에서 pop, foot, book을 발음할 수 없는 것도 아니지 않는가.

마치 두 언어 간에 힘겨루기를 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으나 오해하지 말자. 논의의 초점은, 외국어 학습의 진입 과정부터 언어 간 충돌이 아닌

관습에서의 충돌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과 무조건 외국어 관습을 따라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모어의 관습이 허용되는 경우까지 놓칠 수 있다는 데 있다. 예컨대, ‘김철수’가 중국어 경계를 막 넘었다. 중국어니 자신을 중국어 관습에 따라 소개해야한다는 생각을 하지만, 경계를 막 넘은 탓에, 자신의 이름이 ‘Jin Zhéxiù(金哲秀)’로 발음된다는 것을 모른다. 배웠어도 그 세 음절을 발음하기가 쉽지 않다. 거기에 세 단어 — ‘黃金, 哲學, 優秀’ — 까지 더해져 소개해야 한다면? 이 때 ‘김철수’는 ‘I don’t know my (Chinese) name.’이라고 하며 자신의 이름을 건너뛰어야 할까?

문제의 소재(所在)가 바로 여기다. 막 입문한 학습자에게 자기소개를 부탁하면 ‘我叫 — ’하며 말을 멈추는 경우가 흔하다. 좀 더 용기를 가진 학습자라면 교수자에게 오히려 ‘我叫甚麼名字?’라고 묻는다. 고유명사이기에 모어의 관습도 허용된다는, 즉 자신을 ‘我叫Kim Cheol-soo’라고 할 수 있다는 생각에까지는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의 개선은, 지금까지 ‘Jin Zhéxiù(金哲秀)’라고 해야 한다가거나 ‘黃金(的)金, 哲學(的)哲, 優秀(的)秀’라고 소개해야한다고만 가르쳤던, 중국어 교육상의 문제의식에 대해 재고와 반성이 선행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2. 섞임의 문화 그리고 언어

문제를 이어 가보자. 中, 港, 英의 교재들이 중국어라는 동일 언어의 교육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 모두가 순수하게 그것을 공용어로 하는 화자들의 방식으로만 구성된 것일까?

내국인과 함께 일본인(山田有美), 미국인(安妮), 중국계 미국인(吳平春), 프랑스인(彼得), 영국인(傑夫) 등 가장 많은 외국인들을 배치시킨 것은 [中國—보통화 → 외국인]이다. 다양한 중국 유학생을 고려한 포용적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에 [香港—보통화 → 외국인], [澳洲, 美國—화어(華語) → 외국인(비화교/화교계 현지인)]에서는 Peter, Jane 등의 한정된 인물이나 학생1, 2, 또는 甲, 乙 등의 무명씨가 배치되어 있다. 이는 그만큼 흥

콩이나 영미권의 중국어 학습자층이 넓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신 [香港—보통화 → 내국인(월어 화자)], [香港—보통화 → 외국인], [澳洲, 美國—화어(華語) → 외국인(비화교/화교계 현지인)]은, 앞서 보았듯, [中國—보통화 → 외국인]에서는 볼 수 없는 여러 표현이나 교재 구성 방식이 섞여있다. [香港—보통화 → 내국인(월어 화자)]에서 본 영문명에 대한 선호도 표현(朋友們更喜歡叫我的英文名字)이나 성과 이름의 묻고 답하기를 나눠 배치한 [香港—보통화 → 외국인]의 과 구성(제1과 你姓甚麼?, 제2과 你叫甚麼名字?), 영문명의 중문명 전환(Helen Linden — 林海英) 등이 그렇다. 또한 [澳洲, 美國—화어(華語) → 외국인(비화교/화교계 현지인)]에서 본 영문명의 직접적인 표기(Peter, Jane)나 국적에 기초한 아이덴티티의 제시(我媽媽是美國人, 可是爸爸不是英國人, 是中國人 등)도 그에 속한다. 더불어 예(10)의 [澳洲, 美國—화어(華語) → 외국인(비화교/화교계 현지인)]에서 보인 “貴姓?” 역시 [中國—보통화 → 외국인]이라면 초면을 가정하며 제시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무엇을 함의할까? 그것은 中, 港, 英 교재가, 어떠한 사회 맥락적 환경에서 어느 발화/담화 공동체 성원에 의해 어떤 수요층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것인가 등, 다양한 내·외적 요소들을 상이한 정도로써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은 [香港—보통화 → 내국인(월어 화자) 또는 외국인], [澳洲, 美國—화어(華語) → 외국인(비화교/화교계 현지인)]은 물론, <표 1>과 관련한 [中國—보통화 → 외국인]도 예외가 아니다. 이 점을 인식할 때, 그 역으로서, 우리는 한국인 학습자들에게 무심코 형성된 경향 — 즉, [中國—보통화 → 외국인]만을 중심으로 학습한 결과 그것을 쉽게 절대 기준시 하려 한다 — 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

한 수업에서 여러 지역의 교재를 동시에 학습할 수 없다는 점에서 어쩌면 이 같은 경향의 형성은 자연스러울 수 있다. 단지 우려스러운 점은, [中國—보통화 → 외국인]을 기준으로 대륙 대 비대륙, 표준 대 비표준, 이상 대 현실 등을 양분하는 이분법적 관점이 문화와 언어(그리고 그 속의 중국어)의 다양한 속성을 바라보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데

있다. 아울러 이 같은 태도가 확장될 경우, 중심 대 외곽, 우세 대 열세라는 프레임으로 中, 港, 英(교재 속)의 중국어를 각기 다르게 대함으로써 대륙 외 언어 현상들에 차별적 관점을 덧씌우고 결과적으로는 균형적인 교차문화적(intercultural) 시야를 확보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중국어 교재라 하여 [中國—보통화 → 외국인]만이 기준이라거나, 그래서 [中國—] 상의 행동 양식이 [香港—], [澳洲, 美國—]까지 동일하게 보일 것이라는 가정은 재고되어야 한다. [中國—보통화 → 외국인]에 대한 맹신에 기초하여 그와 다른 [香港—보통화 → 내국인(월어 화자)], [香港—보통화 → 외국인], [澳洲, 美國—화어(華語) → 외국인(비화교/화교계 현지인)] 상의 내용을 다른 것이 아닌 틀린 것으로 대하거나 언어에서 문화를 소거한 채 교재라면 사회 맥락적 요소들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오히려 우리의 시야를 좁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앞서 II장에서 논의되었듯, 문화와 언어는 모두가 지속적인 변화의 축적물이란 점에서 그것의 존재 양식은 혼재된 양상을 보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 중의 어느 부분을 담아내더라도 결과로서의 교재는,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보듯, 자연스럽게 이질적 형태를 띠며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제 필요한 것은 끊임없이 문화와 언어 속에 존재하는 다양성을 관찰하고 기존에 갖고 있던 우리의 관점을 넓히려고 노력하는 태도일 것이다.

<References>

1. Chang, Peter & Alyce Mackerras & Yu Hsiu-ching. *HANYU For Beginning Students*. Australia: Longman, 1992.
2. Ch'en, Ta-tuan & Perry Link & Yih-jian Tai & Hai-tao Tang. *Chinese Primer Character Tex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4.

3. Dai, Gui-fu & Liu Li-xin & Li Hai-yan eds. *Hanyu-Kouyu* 1, Seoul: Dongyang Books, 2009.
4. Dai, Gui-fu & Liu Li-xin & Li Hai-yan eds. *Hanyu-Kouyu* 3, Seoul: Dongyang Books, 2010.
5. Dai, Gui-fu & Liu Li-xin & Li Hai-yan eds. *Hanyu-Kouyu* 4, Seoul: Dongyang Books, 2009.
6. Deutscher, Guy (Yoon Yeong-sam Trans.). *Through the Language Glass*. Seoul: 21st century books, 2011.
7. Fasold, Ralph. *The Sociolinguistics of Language*. Blackwell Publisher (reprinted by Foreign Language Teaching and Research Press [外語教學與研究出版社] in Beijing, China, 2000), 1990.
8. Graddol, David. "Will Chinese take over from English as the world's most important language?", *English Today* 104(26-4), 2010.
9. Han, Sang-bok & Lee, Mun-ung & Kim, Gwang-eok. *Cultural Anthropology* (revised edition).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2011.
10. Harari, Yuval Noah (Jo Hyeon-uk Trans.). *Sapiens: A Brief History of Humankind*. Seoul: Gimyeongsa, 2015.
11. Kim, Ha-su. *Language as a problem 1: Society and Language*. Seoul: Communication Books, 2008.
12. Korean Society for Cultural Anthropology. *An Introduction to Cultural Anthropology*. Seoul: Il-jo-gag, 2003.
13. Kramsch, Claire. *Language and Culture*. Oxford University Press (reprinted by Shanghai Foreign Language Education Press [上海外語教育出版社] in Shanghai, China, 2000), 1998.
14. Lee, Philip Yungkin. *You Can Speak Mandarin* Stage One. Australia: Harcourt Brace, 1993.
15. Lin, Angel. "Egalitarian Bi/multilingualism and Trans-semiotizing in

- a Global World”, In Wayne E. Wright, Sovicheth Boun, Ofelia Garcia eds. *The Handbook of Bilingual and Multilingual Education*. West Sussex: John Wiley & Sons, Inc., 2015.
16. Liu, Lin, “Guangdonghua vs Putonghua: Dang Xianggang de yuyan yu shang zhengzhi”. *BBC News* (Chinese edition), 2017.06.29.
17. Ma, Jing-heng Sheng. *Hanyu rumen*(*Keys to Chinese Language*) Book I, Hongkong: The Chinese University Press, 2006.
18. Park, Chan-wook. “The Change of Chinese Status and the Direction of Chinese Education in Korea”. *Chinese Studies* 57, 2016.
19. Richards, J. C.. *New Interchange* 1.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20. Sapir, Edward. *Language: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Speech*. New York: Harcourt, Brace and Company, 1921.
21. Weinreich, Uriel & William Labov & Marvin I. Herzog. “Empirical foundations for a theory of language change”, In Winfred Philipp Lehmann, Yakov Malkiel eds. *Directions for historical linguistics*.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1968.
22. Wu, Wei-ping ed. *Putonghua sucheng*(*Nanren-beiyu·Chuji*). Hongkong: The Commercial Press, 2016.
23. Yan, Margaret Mian & Jennifer Li-chia Liu. *Interactions I: A Cognitive Approach to Beginning Chinese*. Indiana University Press(reprinted by SMC Publishing Inc.[南天書局有限公司] in Taipei, Taiwan, 1998), 1997.
24. Zheng, Jing-yi. *Yuyinshengxue-Shuohua shengyin de kexue*. Taipei: Psychological Publishing, 2011.
25. United States Census Bureau(American Fact Finder): <https://factfinder.census.gov/faces/nav/jsf/pages/searchresults.xhtml?refresh=t>.

< 참고문헌 >

1. Chang, Peter & Alyce Mackerras & Yu Hsiu-ching. *HANYU For Beginning Students*. Australia: Longman, 1992.
2. Ch'en, Ta-tuan & Perry Link & Yih-jian Tai & Hai-tao Tang. *Chinese Primer Character Tex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4.
3. 戴桂芙, 劉立新, 李海燕 편저, 《한어구어》1, 서울: 중국어뱅크, 2009.
4. 戴桂芙, 劉立新, 李海燕 편저, 《한어구어》3, 서울: 중국어뱅크, 2010.
5. 戴桂芙, 劉立新, 李海燕 편저, 《한어구어》4, 서울: 중국어뱅크, 2009.
6. 기 도이처 저, 윤영삼 역, 《그곳은 소, 와인, 바다가 모두 빨갳다》, 서울: 21세기북스, 2011.
7. Fasold, Ralph. *The Sociolinguistics of Language*. Blackwell Publisher (reprinted by Foreign Language Teaching and Research Press[外語教學與研究出版社] in Beijing, China, 2000), 1990.
8. Graddol, David. "Will Chinese take over from English as the world's most important language?", *English Today* 104(26-4), 2010.
9. 한상복, 이문웅, 김광익, 《문화인류학》(개정판),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10. 유발 하라리 저, 조현욱 역, 《사피엔스》, 서울: 김영사, 2015.
11. 김하수, 《문제로서의 언어 1: 사회와 언어》,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8.
12. 한국문화인류학회, 《처음 만나는 문화인류학》, 서울: 일조각, 2003.
13. Kramersch, Claire. *Language and Culture*. Oxford University Press (reprinted by Shanghai Foreign Language Education Press[上海外語教育出版社] in Shanghai, China, 2000), 1998.
14. Lee, Philip Yungkin. *You Can Speak Mandarin Stage One*. Australia:

- Harcourt Brace, 1993.
15. Lin, Angel. "Egalitarian Bi/multilingualism and Trans-semiotizing in a Global World", In Wayne E. Wright, Sovicheth Boun, Ofelia Garcia eds. *The Handbook of Bilingual and Multilingual Education*. West Sussex: John Wiley & Sons, Inc., 2015.
 16. 劉林, 〈廣東話 vs 普通話: 當香港的語言遇上政治〉, 《BBC News 中文》, 2017.06.29.
 17. 馬盛靜恆, 《漢語入門》(上冊), 香港: 香港中文大學出版社, 2006.
 18. 박찬욱, 〈중국어의 위상변화와 한국의 중국어교육 방향에 대한 일고〉, 《中國學》 第57輯, 2016.
 19. Richards, J. C.. *New Interchange 1*.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20. Sapir, Edward. *Language: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Speech*. New York: Harcourt, Brace and Company, 1921.
 21. Weinreich, Uriel & William Labov & Marvin I. Herzog. "Empirical foundations for a theory of language change", In Winfred Philipp Lehmann, Yakov Malkiel eds. *Directions for historical linguistics*.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1968.
 22. 吳偉平 總主編, 《普通話速成》(南人北語·初級), 香港: 商務印書館, 2016.
 23. Yan, Margaret Mian & Jennifer Li-chia Liu. *Interactions I: A Cognitive Approach to Beginning Chinese*. Indiana University Press (reprinted by SMC Publishing Inc.[南天書局有限公司] in Taipei, Taiwan, 1998), 1997.
 24. 鄭靜宜, 《語音聲學—說話聲音的科學》, 臺北: 心理出版社, 2011.
 25. United States Census Bureau(American Fact Finder): <https://factfinder.census.gov/faces/nav/jsf/pages/searchresults.xhtml?refresh=t>.

< Abstract >

This study aims to discuss about the critical mind that we need to have in the process of Chinese education, which is based on the comparisons between the Chinese textbooks of three regions — China (mainland), Hongkong, Australia & USA — on the two topics of ‘how to introduce’ and ‘how to address’. For this aim, this study considers the similarities between culture and language firstly in terms of the attributes that they have. Then, it compares phenomena related to ‘introductions’ and ‘names’ in the textbooks. It also analyses its results and explains how similar/different they are and what makes them diverse, even though they all are in pursuit of the good materials that are used to teach and learn one language — the standard Chinese.

Key Words : 문화(culture), 언어(language), 중국어(Chinese), 보통화
(Putonghua), 소개(introduction), 이름(name), 중국어교재
(Chinese textbook)